

SHINJUKU NEWS

신주쿠뉴스



외국어판 홈페이지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y.shinjuku.tokyo.jp/foreign/korean/>

제 4 호

2006 년 3 월 25 일 발행

발행 신주쿠구 지역문화부 문화국제과

전화 : 03-5273-4069

FAX : 03-3209-1500

우 160-8472 도쿄도 신주쿠구 가부키초 1-4-1

봄, 뭔가 시작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일본의 학교와 회사는 4월에 입학과 입사를 맞이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봄은 시작의 계절.

친구 사귀기와 스포츠에, 취미... 당신도 뭔가 시작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가까운 교실을
안내합니다.

하나 일본어를 배우자 친구를 사귀자

문의 신주쿠 다문화공생프라자 03-5291-5171 <http://www.shinjukubunka.or.jp/tabunka/korean/index.html>

신주쿠구 일본어교실

초급자를 대상으로 구내 8개 장소에서 개최. 우선
인사부터 시작해봅시다! 도중에도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일 시 월 ~ 금요일의 오전 9시 30분 ~ 11시 30분
전기 4~9월, 후기 10~3월
참가비 주 1회 클래스 전기 · 후기 각각 3000엔
주 2회 클래스 전기 · 후기 각각 6000엔

자녀와 함께 하는 일본어교실

자녀와 함께 즐겁게 공부합니다. 영유아 동반도
환영! 참가비는 무료(단 보험료 500엔)입니다. 5
월부터 시작합니다.
일 시 토요일(매월 2회 정도) 오전 10시 ~ 12시
장 소 오오쿠보초등학교(오오쿠보 1-1-21)

국제교류살롱

일본어 · 외국어를 섞어서 이야기해 보시지 않으
시겠습니까? 당일 자유참가, 1사람당 참가비 200엔
입니다.
일 시 매월 제2금요일 오후 7시 ~ 8시 30분
장 소 신주쿠 다문화공생프라자

자원봉사자 일본어교실

자원봉사단체가 구내에서 일본어교실을 개최. 요
일과 레벨(초 ~ 상급)은 교실에 따라 다양.
와세다봉사단 · 일본어 자원봉사회 카지무라 씨는

“교과서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그대로 생활에서는 사
용할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교과서에는 없는 표
현법, 일상생활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교재도 신문
이나 요리책, 슈퍼마켓
의 전단지 등 실천적인
입니다. 학습자가 무엇을
배우고 싶어하는지, 학
습자 주체로 서포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가자 중
에는 일본에 와서 바로 다음날 오는 사람과 여러 곳을
함께 다니는 열성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신주쿠 다문화공생프라자의 일본어학습코너

신주쿠 일본어네트워크의 스태프
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태프인
요시모토 씨는 “그 사람에 맞추어
공부합니다. 대화와 질문, 숙제 등
자원봉사자가 도와드립니다. 아이
동반이나 초중학생도 환영. 다음
시간대에 오시기 바랍니다.”

‘모두 함께 니혼고’ 제1·3·5
수요일 오후 2시 ~ 4시

‘히라가나 카타카나의 모임’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3시



둘 스포츠에 도전하자

코즈믹센터에서 스포츠에 도전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에어로
빅이나 기공태극권, 요가, 수중운
동 등 가볍게 참가할 수 있는 공
개 레슨을 개최. 궁도, 합기도 등
에서는 지도원이 원 포인트 어드
바이스를 해드립니다.



스포츠, 평생학습은
레가스로

셋 취미를 시작하자



다도와 꽃꽂이, 서예, 회화, 바둑
등에 도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구내에는 다양한 취미 동아리가
사회교육회관 등에서 활동하고 있습
니다. 당신도 참가해보지 않으시겠
습니까?

문의 레가스신주쿠 03-3232-7701(일본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regasu-shinjuku.or.jp>

다음호의 발행예정은 2006년 6월 입니다. 구청, 신주쿠다문화공생프라자, 출장소, 도서관 등 각 공공기관에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가자 ~ 다언어 '도서관 이용안내'가 만들어졌습니다!~

구내의 요츠야도서관, 기타신주쿠도서관, 오오쿠보도서관, 추오도서관에서는, 합계 6000 권에 가까운 외국어 서적을 갖추고 있습니다. 관내에서는 영어나 중국어, 한국어의 잡지(42종류)와 신문(9종류)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연 4회 중국어와 한국어로 그림책 읽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부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원봉사자가 직접 만든 '이용안내' (영어·중국어·한국어)는 각 도서관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신주쿠구 외국어 홈페이지의 PDF 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요츠야도서관

(나이토마치 87 요츠야지역센터 7F)

토쿄메트로 마루노우치선

신주쿠교엔마에역

하차 도보 5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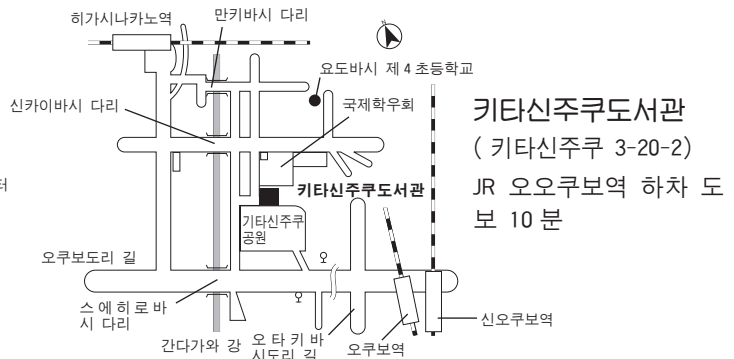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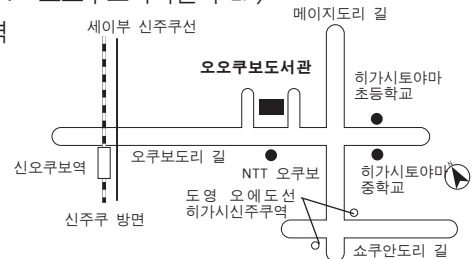
<http://www.city.shinjuku.tokyo.jp/foreign/korean/>
문의 추오도서관 03-3364-1421

오오쿠보도서관

(오오쿠보 2-12-7 오오쿠보지역센터 2F)

JR 신오오쿠보역

하차 도보 8분



육아정보 다언어로 발신



다언어의 '육아서비스 가이드'를 발행합니다(영어·중국어·한국어) 보육원, 학동클럽 등의 정보와 육아상담 창구 등, 육아로 고민이 있을 때 반드시 도움이 되는 정보를 게재. 현역 엄마 그룹인 '신주쿠육아정보국'에서 편집하였습니다.

구청, 신주쿠 다문화공생프라자 등 구의 공생시설에서 4월중에 무료 배포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신주쿠구 외국어 홈페이지의 PDF 판에서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http://www.city.shinjuku.tokyo.jp/foreign/korean/> 문의 어린이가정과 03-5273-4544

신주쿠구 평화도시선언 20주년

일본은 세계에서 유일한 핵피폭 국가입니다. 신주쿠구에서는 스스로도 전화를 입은 도시의 주민으로서, 1986년 3월 15일에 평화도시선언을 한지, 올해로 20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문의 남녀공동참여·평화담당

03-5273-4088

'평화의 등불'

(구청 정면 현관 앞)

원쪽의 투하지 히로시마시와 나가사키시에 있는 평화공원의 불에서 분화되었습니다.



개호보험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고령자인 사람이 살기에 익숙한 지역에서, 안심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개호예방을 목적으로 한 서비스와 가택에서의 생활지원이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2006년 4월부터 개호보험제도의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개호 상태구분에 '요지원 1·2'가 추가되어, 현행의 5단계에서 6단계로 바뀌었습니다.
- 가벼운 요개호 상태(요지원 1·2)인 사람에게 신 예방급부인 개호예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생활능력이 저하되어 있어, 요지원·요개호 상태로 떨어질 위험이 높은 사람에게 지역지원사업인 개호예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고령자인 사람에게 필요한 원조와 지원을 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서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설치합니다. 지역포괄지원센터에서는 고령자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의 종합상담과 개호예방 플랜의 작성 등 개호예방 매니지먼트, 고령자에 대한 학대방지, 권리옹호에 필요한 원조 등을 해나가겠습니다.

문의 개호보험과 경리계 03-5273-4596

한마디 메모

개호보험은 40세 이상인 사람이 가입자가 되어 보험료를 부담하고,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들어간 비용의 일부(원칙 1할)를 지불하고 개호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신주쿠구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입국당시의 체류기간이 원칙적으로 1년 이상인 사람은 개호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 신주쿠구 외국인 유학생 학비장려비 ●

신주쿠구에서는 유학생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경제적인 원조를 필요로 하고, 성적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매년 10명을 선발)에게 장려금(연액 24만 엔)을 지급합니다.

대상 다음의 조건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

- ① 체류자격이 '유학'으로 국비외국인유학생 이외인 사람
 - ② 구내 대학원의 석사 또는 박사과정, 대학의 학부, 단기대학의 학과, 전수학교의 전수과정인 어느곳에 1년 이상 재학하고, 앞으로도 1년 이상 계속해서 재학할 예정인 사람
 - ③ 신주쿠구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현재 구내에 살고 있는 사람
 - ④ 학업, 인물 모두 뛰어나고, 유학생활동을 위해 경제적인 원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
 - ⑤ 외국정부 파견유학생이 사비유학생일 것
- 신청 모집은 매년 5월 예정입니다. 응모는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담당창구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문화국제과 03-5273-4069

기타의 장학금정보는,

-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
http://www.jasso.go.jp/study_i/scholarships.html
- 일본유학가이드 'JAPAN STUDY SUPPORT'
<http://www.jpss.jp> 등의 홈페이지를 참고하는 등, 각 학교의 창구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등록창구에서의 알림

외국인 등록창구는 성수기인 3월·4월·7월·10월·1월은 대단히 혼잡하여, 2시간 이상 기다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다음 사항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혼잡한 시기라도 비교적 한산한 오전 8시 30분부터 11시의 시간대에 찾으시기 바랍니다.
 - 월요일, 금요일 등 휴일 전후는 특히 혼잡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등록원표 기재사항증명서'는 가까운 특별출장소에서도 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문의 호적주민과 외국인등록계 03-5273-4094

신주쿠구 여유있게 산책

벚꽃구경을 즐겨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일본에서는 봄이 되면 벚꽃을 즐기면서 가족이나 친구, 회사의 동료들과 한때를 즐기는 '하나미(벚꽃구경)'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구내의 벚꽃 명소를 소개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미'를 즐겨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신주쿠 중앙공원
우호제후의 기념수로써 나가노현 타카토오마치에서 보낸 코히간자쿠라 벚꽃이 짙은 핑크빛을 띠어 아름답습니다.



신주쿠교엔
신드넓은 정원 내에는 소메이요시노를 비롯해, 여러가지 벚꽃들이 피기 시작해, 오랫동안 꽃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입장료 어른 200엔, 초중학생 50엔입니다.

칸다가와 산책로
칸다가와 천의 연변을 뒤덮은 듯한 벚꽃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개천을 따라 이어지는 산책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소토보리주변
이이다바시에서 요츠야 사이에 있는 해자. JR 차창으로 벚꽃나무들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해자에서는 보트도 즐길 수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 공생 최전선

신주쿠구에는 100 개가 넘는 나라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각각 문화의 소개와 다문화공생 현장 등을 리포트하는 다문화 최전선. 이번에는 와세다대학에 다니며, 신주쿠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 친노요 씨에게 학교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 일본에 와서 좋았던 일은 많이 있는데, 하나는 와세다대학에 합격한 일, 두번째는 장학금을 지급받았던 일, 세번째는 세미나 그룹 연수를 무사히 마친 일입니다 ～

문화를 뛰어넘어 일본에서 성장하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들어보았습니다

—유학의 계기는?

일본 만화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특히 ‘슬램덩크’ 등은 부모 몰래 볼 정도로 좋아해서(웃음).

중국에는 대만을 경유해서 많은 일본 만화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본에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와서 겹은 없었습니까?

실은 유학전에 아버지의 일 관계로 중학교 때 3년간 나카노구에 살았습니다. 게다가 느닷없이 구립 중학교에 입학했기 때문에, 처음 1년은 안절부절. 그다지 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수학만은 어떻게든 되었지만... 그래도 아직 어린이라 기억이 빨랐기 때문이었을까, 틀리는 일에 창피함이 없었기 때문이었을까, 어느샌가 자연스럽게 일본어로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 중국에 돌아갔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역사나 한시 등으로 고생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유학은 쉽게 결정되었습니까?

처음에 부모가 반대했습니다. 학업과 아르바이트의 양립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래도 장래의 계획을 이야기 하며 설득했습니다.

—학생생활은 어떻습니까?

기숙사의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즐거워요. 기숙사 옆에 있는 국제학사에서는 유럽과 중국, 미국 등 다양한 국가의 유학생이 100 명 정도 있습니다. 기숙사 동료들 간의 교류파티 기획과 모임의 의장도 맡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어려운 점은?

어떤 유학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지만, 역시 아르바이트와 학업의 양립입니다. 생활비와 학비를 위해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장학금을 받게 되어 아주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주거를 찾는 데도, 아르바이트를 찾는 데도 ‘외국인은 사절’이라는 곳이 많아, 그 점에서는 익숙해졌습니다. 다음은 역시 일본어의 ‘애매함’. 회화



할로윈 파티에서



친노요 씨

중국 오모이 출신

현재 와세다대학 정치경제학부 경제학과 3학년
‘신주쿠구 외국인 유학생 학습장려금’의
2005년도 장학생

에서 미묘한 뉴앙스를 알지 못해, 의도와는 반대로 반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더욱 확실하게 표현을 합니다.

—장래의 희망은?



와세다 축제에서

고 있는 사람으로서, 일본계 기업의 컨설턴트로 일을 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유학생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아르바이트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도 있겠지만, 반드시 학생시절밖에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책을 읽고, 여러 사람들과 만나서 자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학 때 밖에 시간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나도 작년까지, 토·일요일과 방과후에는 전부 아르바이트의 나날이었는데, 이대로는 학생생활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느끼고, 지금은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일본은 할 마음이 있는 학생에게 있어서 상당히 좋은 환경에 있습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자유, 기회도 평등합니다. 학생이라도 여러가지 이벤트를 기획하고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풍부한 일본의 환경을 충분히 살려, 자신을 성장시키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기숙사 여러분과